

창조신앙과 생태학

(이정배 편저/서울: 설우사, 1987)

생태학과 신학

(이정배 편저/서울: 종로서적, 1989)

최봉기

“생태학적” 관심이 보편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권 유지용 성장 이데올로기로 인해 공해 실상을 문제시하는 것마저 금지 당 하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요즈음 공해니 환경파괴니 하는 관주도적 대중적 관심이 “생태학적” 관심의 곡해나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으면 한다. 매스미디어들의 관심 역시 관심의 “가수요” 현상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생태학적 관심이란 도무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태학적 관심”이란 한마디로(사실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총체 관련적” 관심임을 말하고자 한다. 슈마허(E. F. Schumacher)의 “윤리적 형이상학”, 카프라(F. Capra)의 “생태학적 인식”, 페퍼(D. Pepper)의 “공환적(公歡的) 도구”, 베이츰(G. Bateson)의 “인공 두뇌학적 사고” 등이 개념의 단순성을 배제한다.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한 공해 등 선전용의 제한된 자료제시 같은 것을 “생

태학적” 관심이라고 말한다면 문제는 처음부터 왜곡되지 않을 수 없다.

생태학적 관심의 왜곡을 막기 위한 길이 정책이나 자료 비판에 있다고만은 보지 않는다. 사실 비판자가 생태학적이기 못하면 그에 의한 비판 역시 또 하나의 곡해이거나 이데올로기 밖에는 되지 않는다. 문제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의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는 난제의 악순환을 빠져나오기가 어려웠다. 대부분의 자료제시는 관주도적이었으며 따라서 잘못된 통치 이념에 의해 조작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에 대한 비판 역시 억압구조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료 수집의 제한성 등으로 신임을 얻기가 어려웠다. 결국 이들 양편이 모두 불신당하는 가운데 관심사항이 생태학적이 되지 못하고 만 것이다. 심지어는 문제에 관해서 생태학적이 된다는 말마저 이해가 곤란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에 이런 난제를 끌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몇가지 책들이 밖으로부터 소개되어 왔다. 그런 것들은 철학적, 경제 사회학적, 과학적, 혹은 심리학적 담론형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그늘 속에서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을 보다 총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창문이 없었던 방에 창틀을 달게 된 소감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문제의 근원성에 대한 사고와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책들은 생태학적 관심이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만큼 그렇게 근원적이거나 총체 관련적이지 못했었던 것 같다. 근원적인 것이든 총체 관련적인 것이든 종교는 그 우선 순위적 관계를 갖는다고 본다. 지금까지 소개된 대부분의 책들은 무신적(無神的)이라기 보다는 물신적(物神的) 내지는 자연신적(自然神的), 혹은 범신적(汎神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생태학으로부터 소외당하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두 책, 이정배 교수의 「창조신앙과 생태학」과 「생태학과 신학」은 이미 출판된 지 3, 5년 된 것이기에(각각 1989, 1987년도 출판) 서평을 쓰기에 늦은 감이 있으나 그러나 그 중요성마저 절감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우선 이 두 책은 지금까지의

철학적, 사회정치, 경제학적, 과학적, 혹은 심리학적 담론 형식을 통한 생태학에의 접근이 아닌 “신학적” 접근이라는데서 기독교인의 특별한 관심을 모은다¹⁾. 생태학에 대한 신학적 접근은 위에서 예를 든 다른 접근에서의 기독교에로의 생태계 파괴 책임 전가에 대한 답변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데서도 기다려졌던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 내의 생태학적 신학자들과 환경윤리학자들의 글모음, 그리고 이 교수 자신의 해설적 소개글로 엮어진 「창조신앙과 생태학」은 먼저 마르티(Kurt Marti) 목사의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에 이르는 창조기사와 시편 104편, 롬 8:18~22절을 통한 아름답고도 감동적인 설교문 10편이 실려 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인식되어야 한다”는 사유어(思惟語)를 중심으로 “지금이 바로 자연을 우리의 신학 즉 우리의 예배와 기도 속으로 다시 불러들여야 할 시기”라고 말하는 마르티는 베스터만(Claus Westermann)의 성서신학,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 1~11장 주석의 기초 위에서 교회 내에서의 창조신앙 회복을 역설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과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관계성 속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을 설명하는 그는 인간도 결코 예외적 존재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위대한 점은 창조주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책임에 있으며 이 점에서 마르티의 창조신앙은 책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창조신앙의 결론 부분에서 창조의 면류관이 인간이 아니라(지금까지는 그렇게 주장되어 왔음) 바로 창조의 일곱번째 날인 안식일 곧 “하나님의 쉬심”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의미는 창조를 “창조의 독자성과 창조의 자유 속으로의 내맡김”과 “모든 피조물에게 비로소 독자적인 생존의 기적의 조명”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것이 결코 피조물로부터의 하나님의 퇴각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1) 생태학에 대한 신학적 접근에 의해 국내에서 출판된 다른 책으로는 김균진 교수의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이 있다.

다만 그것은 일곱째 날에만 국한된 하나님의 긴 호흡이었다고 한다. 하나님은 시편 104편의 노래가 고백하고 있듯 그 주권 속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거환경 곧 집을 짓도록 허락하시며, 인간의 책임적이지 못한 삶은 모든 생물들의 주거환경 곧 생태계 파괴의 위기를 초래했으나만큼 인간의 창조주와 피조물들간의 관계회복의 요청이야말로 창조신앙적임을 로마서를 통해 설교하고 있다.

귄터 알트너(Günter Altner) 교수의 “자연과의 화해를 위한 선언 - 환경 위기상황 속에서의 교회의 의무”는 피조세계에 대한 그동안의 인간의 잘못된 태도(정복자로서의 태도)의 중지를 요청하고 인간도 자연과 더불어 하나의 “공동 창조물”임을 선언하면서 구약성경에서 인간의 창조 위임은 “경작과 보호”를, 그리고 신약성경 내에서의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공동 피조물을 위한 “해방의 표시”로서의 위치를 확립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교회의 과제로서의 12조항은 “공동체”, “화해와 참여”, “책임윤리” 등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리(Fritz Buri) 교수의 “기독교 신앙 내에서의 땅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서는 오늘날 위기상황이라고 불리어지는 생태계 파괴의 기독교적 책임을 절감하면서 그러나 그 원인은 기독교 신앙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신앙의 곡해에서 생긴 것임을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설득시키고자 한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를 바르게 인식하는 믿음은 피조물의 파괴가 아닌 오히려 보존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며 이 신앙이 “자기자신의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책임으로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 책임과 함께 땅과 인간의 죄까지도 인격적으로 떠맡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속죄를 하고 - 자기의 입장과 태도를 통하여 - 새롭게 된 세계 안에서 자신을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착함을 통하여 창조하심과 보존하심과 새롭게 창조하심을 알게 되는 바로 그곳에서만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땅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의 새로운 창조를 조망하는 기독교 신앙의 희망”이 된다고 말한다.

노이엔슈반더(Ulrich Neuenschwander) 교수의 “윤리적 과제로서 환경보호”는 그 윤리적 과제가 동기보다는 긴박성에 대한 “세찬 관심”이 선행적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생태계 파괴의 원인 제공적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의 거부가 아닌 “그의 사려깊은 제어와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그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윤리적 과제는 “그 때문에 산업적 세계를 거부하며 산업이전적 세계를 대안으로 내놓는 그러한 거짓된 전선으로부터의 보호”와 더불어 “본래적인 난점을 진실되게 고려하는 올바른 전선을 소유함”으로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 죽음을 초래하는 기술의 강제적, 무력적 가능성을 구체화시키는 인간의 탐욕과 방종 대신에 생명을 보호하는 기독교 신앙적인 것을 요청하고 있다.

두번째 책 「생태학과 신학」은 프리드리히(G. Friedrich)의 “생태학과 성서-새로운 인간과 우주”의 논문 외에 이징베 교수 자신이 리드케(G. Liedke)의 환경윤리작업과 베스터만(C. Westermann)의 창조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서신학적 작업을 연결하는 생태학적 신학의 타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 부과의 절반을 차지하는 프리드리히의 “생태학과 성서”는 성서의 생태학적 해석의 여지를 전제하면서 창세기의 창조기사를 재해석할 것을 요청하는데 여기에서 프리드리히 역시 다분히 베스터만의 창조 신학적 관점을 유지하고 이를 신약의 그리스도의 사건에 연결하여 적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리드리히에 의하면 오늘날 환경의 위기는 “성서적인 사신”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결과라고 본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받은 힘의 남용,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에서 오늘날과 같은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인간의 의심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라고 말하는 그는 인간의 죄가 땅의 모습을 변형시켰고 피조물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가 파괴되었다고 한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는 곧 인간과 피조물간의 분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성서 내지는 기독교 신앙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이며 프리드리히는 오히려 데카르트의 반성서적 인식론, 비기독교적 자연관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한다. 기독교 교리적 책임은 그와 같은 과학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항하지 못한데 있으며 오히려 그러한 인식론과 자연관에 편중해서 기독교적 인간관과 구원론을 재편한데서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학이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동 피조물성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 인간성과 함께 다루어야 하며, 인간의 자연에 대한 태도 변화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외경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서구의 전통적인 신학은 (특히 볼트만의 경우) 이 점에서 그 결핍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인 창조론과 구원론 속에서 하나님도 그의 피조물인 자연도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복되어야 할 생태학적 성서신앙은 인간을 포함한 전피조물들에 대한 조물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회복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신약성경 속에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화해케 하시는 “우주의 주님”이 되신다고 한다.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먼저 구원받은 복음의 선포적 과제를 교회와 더불어 가지며 이때 교회가 인간의 우선적인 새로워짐 없이 관계개선 능력의 어떠한 가능성도 암시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위배임을 경고하고 있다. “새로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한층 교회의 과제이다.” 신학은 이를 반영하여 공동-인간성으로부터 공동-피조물성으로서의 주체화를 통한 구성요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프리드리히는 촉구한다. “요약해서 말하면 자신의 창조신앙을 진지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세계를 오염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는 환경보호 기준들을 통해 낙원상태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는 그의 몸의 구원과 썩어짐과 상살의 예속으로부터 피조물의 해방을 고대하는 기대자이며 희망자이다(롬 8:20 ~ 24) 우리가 생태학을 일별하면서 필요로하는 것은 하느님의 피조물 앞에서의 외경에 대한

가르침과 새로운 인간으로 되고 하느님의 피조물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활하는 복음의 선포이다.”

이정배 교수의 몇가지 글모음들은 서구에서의 창조신앙과 환경운리의 토착화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다. 다분히 해설적이고 소개한다는 입장에서 원초적이긴 하지만 이 방면이 불모지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교수의 이땅에서의 생태신학적 작업은 보배스럽고 감사하기 이를 데 없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생명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그는 창조신앙의 근본강령을 “생명현상의 지속적 존속에 대한 주도면밀한 염려”라고 한다. 베스터만의 창조신학적 관점에서의 성서해석을 지지하는 그는 그 신앙문화적 적용에서 성만찬 예배의 의미를 재조명하는데 거기엔 1) 나눔의 식탁, 2) 단순함과 소박함을 통한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교제, 3) 식탁을 둘러싼 대화와 교제의 사건성, 4) 공동체적 식사행위를 통한 손님으로서의 인간의 자기인식, 그리고 5) 종말론적 인식하에서의 감사의 의미로 밝히고 있다.

이상의 두 책에 담긴 정성과 수고에 대해 이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신학적 관점에서의 생태학에의 접근이 이 두책을 통하여 비로소 국내학자에 의해 처음 소개된 점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값진 노력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평의 형식상 아쉬운 점을 말한다면 우선 성서의 관련연구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내용이 베스터만의 창세기 1~11장 강해에 의존하고 있는 듯하며 그외에 지혜서 중 일부, 바울 서신 중 단일 구절, 기타 묵시록에서의 인용 등으로 성서의 관련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데 성서의 생태학적 관심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성서로부터 나오는 생태학적 관심에 관한 폭넓은 성서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창조신학과 구속신학 사이의 간격 내지는 갈등에 관한 문제제기 혹은 극복을 위한 설명이 더 깊고 넓게 다루어져야 할 것 같다. 구속신앙과 신학의 뿌리깊은 역사와 오늘날의 폭넓은 수용사실을 감안한다면 창조신학과 구속신학 사이의 대결적 구조는 대

중적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해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 같다. 이의 극복을 위한 보다 진지한 대화구조가 필요할 것 같다. 사실 프리드리히의 “생태학과 성서”에서는 문제의 해결을 구속신학적 관점에서 찾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끝으로 이 교수 자신의 토착화 작업적 해설서 내지는 대화신학적 제안들은 한두 사람의 주도적 사상(controlling idea)에 너무 집착하고 같은 개념들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듯한 아쉬움을 주며, 대화신학적 제안에 있어서는 “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서평을 쓰는 필자는 두 책의 편저자에게 같은 관점에서의 윤리학도이기를 노력하는 가운데 빚진자됨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바이다.